

## 폴란드, 정권교체로 대 EU 경제협력 강화 전망

### 1. 10월 21일 총선에서 야당승리

#### □ 다수정당에서 4대 정당 중심으로 하원의석 분포

- 예정보다 2년 앞서 10월 21일 실시된 폴란드 하원(Sejm)의원<sup>1)</sup> 선거에서 중도우파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이 최다 득표로 정권이 교체됨. 정당별 득표율은 PO당 41.6%, 법과 정의당(PiS) 32.1%, 민주좌파그룹(LiD) 13.2%(원내진출), 폴란드농민당(PSL) 8.8%, 자위당(SD)과 가족당(LRP)은 5% 미만으로 나타남.<sup>2)</sup>
- \* 보수우파 연정의 우경화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지지 유권자(도시지역 젊은 계층)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정권교체를 이뤄낸 것으로 분석됨.
- 총선 투표율은 55%로 1989년 공산정권 붕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2005년 총선 투표율은 민주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한 바 있음.
- 총 46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에서 PO당은 209석을 획득하여 PSL당(31석)과의 연정구성으로 과반수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반면,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은 166석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새로 구성되는 하원은 11월 5일 개원될 예정이며, PO당은 10월 23일 투스크 총재를 총리후보로 공식 추대하였음. 또한, 카진스키 대통령의 총리 지명은 11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1) 중선거구 비례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별로 4-10명의 의원 선출)로 전국적으로 5% 이상 득표 정당에 한해 선거구별로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됨. 상원은 중선거구 다수대표제(인구비례에 따라 다수득표자 순으로 2-4명의 의원이 선출되는 FPTP 방식)로 선출됨.

2) 2005년 9월 총선에서 시민강령당은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으나 도시지역 청년층의 낮은 투표율로 실제 투표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법과 정의당(농촌 유권자와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 지지)에 패배한 바 있음.

<표 1> 정당별 총선 의석 및 득표율 추이

	2001. 9(의석)	2005. 9(의석)	2007. 10(예상득표율)
시민강령당(PO)	65	133	(41.6)
법과 정의당(PiS)	44	155	(32.1)
폴란드농민당(PSL)	42	25	(8.8)
민주좌파그룹(LiD)	(..)	(..)	(13.2)
기 타	309	147	(4.3)
계	460	460	(100)

자료: EIU, Country Profile 2007 및 ViewsWire.

□ 여당패배 및 야당승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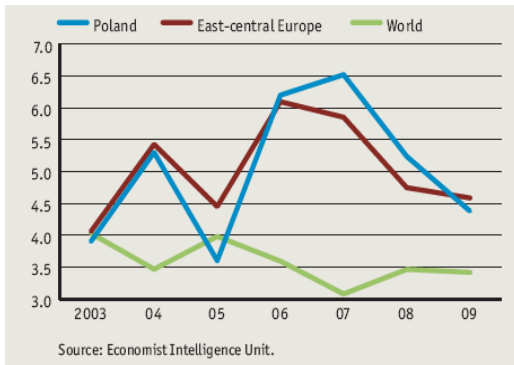
○ 경제개혁 추진성과 부진에 대한 평가

- 레흐 카진스키(Lech Kaczynski) 대통령<sup>3)</sup>과 야로슬라브 카진스키(Jaroslaw Kaczynski)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의 선동적 대중영합주의(populism), 급격한 우경화에 대한 지식인 계층이나 기업인 등 폴란드 유권자들의 우려가 이번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지난 2년 동안 보수우파 연정은 사회후생에 중점을 두면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경제정책 노선을 취하였음. 또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촉진과 고용창출, 개인소득세 등의 조세제도 개선,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등의 경제정책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러나 PiS당이 SD당과 LPR당과의 공조로 경제개혁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재정통합 노력이 소수연합 정권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경제구조개혁 자체가 지연되어 왔음. 또한, 카진스키 총리는 정부 개입 및 통제 강화를 통한 경제정책을 운용함으로써 민영화 추진실적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음.
- \* 일례로 2006년 3월 Pekao은행(이탈리아 Unicredito 폴란드 지사)과 BPH은행(독일 HVB 폴란드 지사) 합병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동 합병으로 금융 경쟁범위를 제한하여 국내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민영화 추진을 지연함.

3) 국민투표로 직접 선출되며 5년 임기로 중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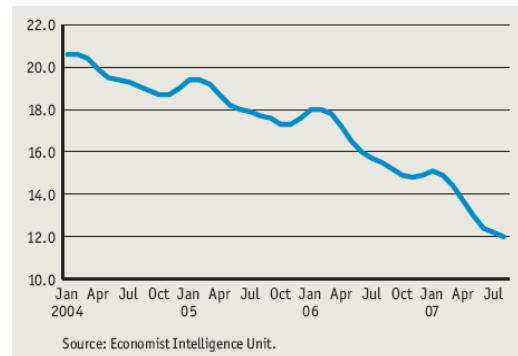
<그림 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 2> 실업률 추이

단위: %



○ 불안한 연정구성에 따른 경제상황 변동성 확대

- 주요 수출대상국(유로존)의 경기호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증대 등의 대외적인 여건이 양호한 시기에는 경제성장이 호조를 나타내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경제상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폴란드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됨.
- \* FDI 유입규모는 2001-03년 민주좌파연맹(SLD) 정권의 민영화 추진지연 및 국제경제 환경 악화로 부진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외국인투자는 투자대상국의 정치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폴란드에서는 2005년 하반기 총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위축된 바 있음.
- \* 2005년 9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PiS은 우파 소수정당들<sup>4)</sup>과 2006년 5월에 연정을 구성했으나 여소야대의 정권구성으로 내각 인선 및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불안한 연정을 유지함.
- PiS당이 이끄는 보수우파 연정은 예산안 처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2006년 9월 SD당이 연정에서 탈퇴함으로써 연정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음. 이후 PiS당이 가까스로 SD당과 연정을 복원함으로써 조기총선은 피할 수 있었음. 그러나

4) 자위당과 가족당은 극우파 정당임.

동년 11월 지방 지자체 선거에서 PO당의 승리로 연정의 결속력이 약화되기 시작함.

- 2007년 들어 카진스키 총리가 연정 파트너 정당인 SD당 당수인 안드레이 레퍼 부총리겸 농업부 장관을 동년 7월 해임함으로써 정치권이 다시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며, 동년 9월 SD당(농민계층 지지) 및 LRP당(가톨릭계 민족주의 성향) 출신 각료 전원 해임으로 연정이 붕괴되어 결국 지난 9월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이 의결됨.<sup>5)</sup>

**<2007년 조기총선 이전 주요 정치상황 전개과정>**

- 2007년 4월 PiS당 소속 Marek Jurek 하원의장이 지지자들을 이끌고 탈당한 데 이어 신당 창당을 선언함으로써 보수우파 연정의 지속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함.
- 2007년 7~8월, 카진스키 총리가 Andrzej Lepper 부총리와 Janusz Kaczmarek 내무장관을 전격 해임한 데 이어 SD당 소속 각료 2명(노동부·건설부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SD당은 사실상 연정에서 탈퇴하였으며, PiS당의 또 다른 연정 파트너인 LRP당이 SD당과 합당(가칭 '폴란드 지위동맹')함으로써 우파연정의 붕괴가 가속화됨.
- 2007년 8월 7일 SD당과 LRP당은 카진스키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였으며, 내각인선, 정부예산 및 사회복지 정책 등을 둘러싸고 PiS당과 연정 파트너 정당간의 심각한 정책대립과 견해차가 발생함.
- 2007년 8월 9일, 카진스키 대통령은 PO당 투스크 총재와 동년 10월경 조기총선 실시에 합의함. 보수우파 연정이 붕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기총선 실시에 동조하는 경향은 정국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해산을 통해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5) 2007년 9월 7일, 제5대 하원은 찬성 377, 반대 54, 기권 20의 표결로 재적의원 2/3 이상(307)의 찬성을 얻어 의회해산안이 통과됨. 또한, 폴란드의 정국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기총선이 불가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카진스키 총리와 법과 정의당은 총선이 실시될 경우 재집권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단을 미뤘음. 그러나 사실상 연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조기총선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조기총선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됨.

**<2005-06년 폴란드 주요 정치상황 전개과정>**

- 2005년 10월 대선에서 시민강령당(PO)의 투스크 후보(1차 36.3%, 2차 46.0% 득표), 법과정의당(PiS)의 카진스키(전 바르샤바 시장) 후보(1차 33.1% 득표) 등이 대권에 도전하였음. 카진스키(2차 54.0% 득표)가 2차 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됨.
- 2005년 9월 총선 실시 이후 PiS당은 우파연정을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PO당의 반대로 동년 10월 합의에 실패하자, 각료 불신임안 상정, 주요 법안 처리 및 예산안 의결 지연 등의 현안에 직면함.
- 2006년 1월 18일 PiS당은 향후 6개월 내 연정구성 및 조기총선 실시 등 정치안정화 협정(140개 조항) 체결을 제안함(2월 총선실시 철회).
  - PO당은 동 협정제안을 거부하였으나, SD당과 LPR당이 2006년 2월 공식적인 연합형태가 아닌 의회 내 3당간 공조체제를 구성함(이들 군소 2개 정당은 조기총선 실시를 우려한 나머지 비자발적 공조를 선택함).
- 2006년 4월, PiS당은 SD당과 LRP당과 연정을 구성하였으나, 내각인선 및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불안한 연정을 유지해 왔음. 동년 7월, Kazimierz Marcinkiewicz 총리가 PO당 투스크 총재와의 사적모임에서 PO당을 두둔하는 발언이 녹음테이프를 통해 공개되면서 Marcinkiewicz 총리가 경질되고 PiS당 카진스키 총재가 총리로 기용됨.
- 2006년 9월, 카진스키 총리가 2007년 예산안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에 대해 대립해왔던 SD당 소속의 Andrzej Lepper 농업부장관(부총리)을 해임하면서 연정은 일시 붕괴됨. 그러던 중 PiS당의 SD 소속의원에 대한 포섭노력이 TV에 중계되면서 PO당 등 야당세력은 내각 총사퇴, 의회 해산 및 임시의회 소집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동년 10월, PiS당은 Lepper 부총리 복귀 결정과 함께 연정을 재구성함.
- 2006년 11월 지방선거에서 PO당이 승리하여 우파연정은 정권장악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연정 파트너 정당 지도자들이 섹스 스캔들과 신-나치에 연루된 혐의 등이 드러나 우파 연정의 도덕성이 타격을 받은 이후 정국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총선 실시가 제기됨.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재>**

- 총선 승리로 차기 총리로 유력한 시민강령당의 도날드 투스크(50)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친기업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경기부진, 외국인투자 위축 등으로 소강국면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경제회복의 책임자로 기대됨.
  - 투스크 총재는 EU에 적극 참여하고 유로화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법인세 인하 및 단일세제 도입, 정부규제 철폐, 공공부문 부패 청산 등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고용 창출을 공약한 바 있음.<sup>6)</sup>
- 1957년 4월 22일, 발트해 연안 항구도시이고 연대노조(Solidarity trade union) 운동의 산실인 그단스크(Gdansk)의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13세 소년으로서 시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하는 것을 보고 정치인이 될 것을 결심함(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였으며 열렬한 축구 팬으로 알려져 있음).
- 1980년대 자유노조 창설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연대노조에 투신해 공산정권의 탄압을 받아 수차례 체포되고 투옥된 바 있으며, 공산정권이 붕괴된 1989년 연대노조에 뿌리를 둔 정당인 “자유민주회의(Liberal Democratic Congress)”를 창당하고 1991년 의원으로 선출됨.
- 2001년 친기업 성향의 시민강령당(Civic Platform)을 창설하였으며, 지난 2005년 9월 총선과 동년 10월 대선에서 카진스키 쌍둥이 형제에 패배한 바 있음.
- 이번 2007년 총선에서는 선거운동 막바지의 TV 토론에서 정연한 논리로 경제회생 계획과 집권 청사진을 밝히는 등 자신감 있는 태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 TV 토론 이후 시민강령당의 지지율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며, 여세를 몰아 투표당일 야당의 승리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6) 야로슬라브 카진스키(Kaczynski) 총리는 낙태 금지규정을 강화하고 사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급격한 우경화 정책을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유로화 도입을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간주하는 등 반(反) 개방, 반(反) 유럽 외교정책을 표방하였음.

## 2. 향후 예상되는 대외정책 운용방향

### □ 외국인투자 유치 위한 경제개혁 추진 기대

- 친기업적 우파성향인 PO당의 연정 파트너로 유력시되고 있는 폴란드농민당(PSL)이 9%에 가까운 지지를 얻어 **안정적 과반수 의석**을 통한 PO당과의 연정구성이 가능한 상태임.
- 왈데마르 파울락 PSL당 당수는 “PO당과 연정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투스크 PO당 총재 제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PO당과 PSL당은 연정구성 합의와 관련한 협상을 거친 후 **신 정부 출범**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됨.
- 친 기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주의 성향의 PO당**은 EU의 통합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독일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개선, 경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의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이 **의회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PO당이 의회 법안을 크게 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각 인선, 경제개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급진적인 경제정책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2> 폴란드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2006	2007f
경제성장률	5.3	3.6	6.1	6.5
재정수지/GDP	△4.8	△2.9	△2.4	△2.0
소비자물가상승률	3.5	2.1	1.0	2.3
실업률	19.6	18.2	16.2	12.8
상품수출	819	964	1,175	1,379
경상수지/GDP	△4.2	△1.7	△3.2	△4.3
FDI 유입실적	12,873	7,724	14,700	15,000
(우리나라 투자실적)	(36)	(77)	(227)	(..)

자료: EIU, Country Report: Poland, Oct. 2007.

## □ 대 EU 외교관계 호전 예상

- 2005년 12월 EU 정상회의에서 EU의 2007-13년 예산협상 결과, 폴란드는 597억 유로의 EU 구조조정기금 수혜를 확보하면서 폴란드 정부는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았음.
- \* 당시 Marcinkiewicz 총리는 취임 이후 해외 첫 순방으로 영국 Tony Blair 총리를 방문하는 등 영국, 독일, 프랑스와의 외교관계 강화에 노력하였음.
- 2007년 6월, 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EU 헌법조약(the new EU constitutional reform treaty) 제정내용 중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의 가중다수결(QMV)\* 의결제도<sup>7)</sup> 도입 시기를 폴란드 정부의 요구대로 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 연장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 유럽 헌법조약은 2005년 부결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서 2007년 7월부터 정부간회의(IGC)를 통해 조약의 최종안이 연말까지 마련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상반기 발효될 전망이다.
- 이번 총선결과, 미국 일변도의 안보정책에 비판적인 투스크 총재의 국정 운영방향은 차기 정부의 대 EU 및 대미 외교·안보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됨. 독일 등 주변 EU 회원국들은 폴란드 총선에서 친 EU 정책을 표방한 PO당이 승리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함.<sup>8)</sup>
- 대미관계는 폴란드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긴밀하게 유지되어 왔음. 2007년 7-8월 미-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의 동유럽 배치 미사일방어(MD) 기지를 폴란드(요격시스템) 및 체코(레이더기지)에 설치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미-폴 양국간 군사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바 있음.
- 그러나 PO당과 투스크 총재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라크 주둔 폴란드 병력의 철수를 공약하였으며, 미국의 동유럽 MD 기지를 폴란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유보적

7) EU 정책결정 조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 필요

8) 주재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차기 폴란드 정부와 유익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시민강령당의 승리를 환영하고 있음.



인 입장을 밝혀 **안보협력 분야**에서 미국과 추가적인 협상이 요구 될 것으로 관측됨.

- 대 EU 관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외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브로 니슬라브 코모로프스키 PO당 부총재는 **외교정책 중심**을 유럽에 둘 것이며 **최우선 외교과제**는 EU 헌법조약을 비준하는 일이라고 강조 했음. 그는 또한, “미국의 MD 기지 설치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 이며 이라크에 폴란드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 \* 특히, EU 헌법조약 협상 과정에서 폴란드 현 정부는 가중다수결 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등 EU의 정치적 통합에 최대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다만, 카진스키 대통령이 2010년까지 임기가 헌법상 보장받고 있어 PO당 출신 총리와의 외교·국방정책 등에서 갈등이 우려되나, 차기 정부의 외교정책은 우선 독일과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과의 관계개 선과 대 EU 경제협력을 통해 폴란드 실리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 외 경제협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됨.
- \* CIS 국가 중 러시아는 폴란드 최대 교역국, 벨로루시는 제3대 교역국임.

□ 국가신용도, 점진적 개선 전망

- 폴란드에 대한 주요기관별 국가신용도 평가는 OECD 2등급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년 3월, S&P는 폴란드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종전의 **BBB+등급(2000.5)**에서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음.

<S&P의 등급 상향조정 사유>

- 경제-균형성장 전망: 투자 호조, 민간소비 회복
- 경제 다양성 증가 및 경쟁력 향상: FDI·EU기금 유입(경상적자 보전)
- 외채상환부담 경감(관리가능): 순외채/수출 = 19%(2006년 기준)

- 지난 2년간 경제개혁이 지연되고 경상수지가 점진적으로 악화된 점이 다소 우려되나,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재·투자재 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그 내용면에서는 양호하며 FDI 및 EU기금 유입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보전이 가능함.
- 특히, EU 가입 이후 교역증대, 내수증가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등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호전된 것으로 분석되며, 물가 및 재정 부문 등에 대한 경제정책 이행수준도 관리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또한, 이번 총선결과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국가신용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중부유럽 주요국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  
(2006년 기준)

단위: 억 달러,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GDP 규모	3,390	1,120	1,425	553	28,995
1인당 GDP	8,898	11,200	13,946	10,136	35,119
소비자물가상승률	1.0	4.1	2.5	4.5	1.7
경상수지/GDP	-3.2	-5.9	-4.2	-8.3	5.1
상품수출	1,175	735	951	419	11,314
상품수입	1,245	741	932	449	9,340
총외채잔액	1,250	776	584	290	-
D.S.R.	17.5	27.0	10.2	9.0	-

자료: EIU, Country Profile: Poland, July 2007.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관계>

□ 교역현황

단위 : 천 달러

	2003	2004	2005	2006	주요 품목
수 출	382,254	807,233	1,174,964	2,613,334	TV, 컴퓨터·통신 부품, 승용차
수 입	73,548	88,789	116,234	270,874	자동차부품, 산업기계, 전동축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수출은 199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7년에는 12.3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아시아 국가 중 대 폴란드 최대 수출국이 되었으나 우리나라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수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함.
- 양국의 교역은 2002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수출 9.3% 증가, 수입 56.1% 증가한 이후 2004-06년에는 수출입 모두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특히, EU 가입 이후 평균 수입관세율이 9.6%에서 EU 평균치인 3.6% 수준으로 인하되어 TV부품, 휴대전화기, 선박용 엔진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인하의 효과가 나타남.
- 우리기업의 투자증대로 기계설비, 원부자재 등의 수출실적이 늘어나면서 2006년 기준으로는 아시아권에서 일본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대 폴란드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함.

□ 해외직접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대 폴란드 직접투자실적은 2007년 6월 말 101건, 10억 7,375만 달러로 5위권(선진국 제외, 총투자기준)으로서 유럽·CIS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내수시장이 큰 폴란드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및 무역업이며,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기계,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가 주종을 차지함.
- \* 우리 기업은 LCD, 강판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폴란드가 유로 2012 개최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로, 경기장 등 건설 및 플랜트 분야에도 진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됨.

해외경제연구소 유럽지역팀장 조양현  
(☎3779-6663) yhjo@koreaexim.go.kr